지역 **메 아 리**

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선정 협의회 가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선정 혐의회 가 지난 10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문채런)에서 정읍시청·지역농협· 농민단체·농업인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 데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시범 운영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2019년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 사업품목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다수의 농업인이 판매 목적으로 1,000㎡ 이상 재배하는 품목,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에서 계통 출하가가능한 품목, 가격변동이 심하여 본 사업지원 대상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였다. 토론결과 건고추 양파, 마늘, 감자 4품목이 2019년 전북주요농산물 가격인정 지원사업 품목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지는 "농업인이 가격 걱정이 없 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지

정읍시, '단풍미인쌀' 수매 개시

정읍시 대표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쌀' 수매가 지난 4일 영원RPC를 시작으로 31 일 까지 진행된다.

금년 단풍미인쌀 수매는 5개단지(신태 인, 고부, 영원, 이평, 감곡)에서 산물벼 형태로 수매하며, 예상 수매량은 조곡 4,799톤 (40kg 기준 119,420가마)이다.

수매는 3단계별 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벼이다. 1단계는 현지포장 검사를 통해 타품종 식재·도복벼 발생·병해충 발생 여부 등을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2단계는 농가별로 채취한샘플시료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단백질 함량이 6.0% 미만인 농가만을 대상으로 산물벼 수매를 제한한다. 또한 3단계는 산물벼 종실(種實)검사를 통해타 품종 유입과 피해립(被害症), 착색립(着色粒), 이물 등 품위검사를 실시한다. 엄격한 단계별 검사를 통과한 수매 조곡은 단풍미인쌀 저장 시설인 전용 사일로에 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는 이번 수매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30일 까지 1단계 검사인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현지포장검사와 2단계 검사인 단백질 함 량 검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지는 "고품질 쌀로서의 단풍미 인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철저하고 엄격한 수매로 정읍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 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변 승마 체험으로 힐링하세요

고창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체험자는 10만원 상당 프로그램 4만원에 이용 가능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말 신업 육 성시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 승마활 성화시업을 지원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촌관광 승미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승마장 운영자에게 외승 승마 체험비의 일부(6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승마 체험자는 10만원 상 당의 승마 프로그램을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시업 대상으로 선정된 고창해 변승마클럽(대표 박현호)은 구시포 해 수욕장과 동호해수욕장 사이에 위치 하고 있으며, 10km에 이르는 명시십리 일대의 해변을 코스로 활용하고 있어 위험하지 않고 강사와 실내 마징에서 사전교육 후 외승을 하고 있어서 초보 자도 쉽게 체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승마는 다이어트 및 체형 교정에 효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호응이 높은데, 특히 고창의 아름다운 해변을 달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승마, 체험은 이색체험코스나, 활동을 찾고 있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아주 적 합한 운동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말 산업 등 신산업 발굴을 통해 고창 군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 모델을 찾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마 체험은 고창 해변 승마클럽 카페(http://caferaver.com/

beachridingchub)를 통해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조상땅 찾기' 이용하세요

최근 5년간 1109명 혜택 매년 이용자수 꾸준히 증가

부안군은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1,109명에게 587 만㎡규모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밝 형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 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 는 제도다.

군은 서비스 시행 후 2012년 140여 명이었던 이용자가 지난해는 535명, 올해 9월까지 393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민원소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 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 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 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 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 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 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 동안 몰랐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당한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부안상설시장,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지난 12일부터 군산시 새만금 컨벤센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국 1천 500여개 전통시장중 부안상설시 장이 최우수로 선정 대통령상 기 관표창을 수상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로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축제로, 상인 및 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상한다.

부안상설시장은 매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국 제일의 전 통시장으로 지속적인 시설 및 경 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회주관 친절 및 마케팅교육 등 민·관이 협력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 으로 인해 부안상설시장이 한단 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부안군은 전통시장 활성 화와 지역선도시장으로의 도약 을 위해 지붕개보수 정비사업,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과 편리를 도모 이용에 불편함이 없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정읍경찰서 지역 치안협의회 합동 개최

정읍시와 정읍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지 역치안협의회(위원장 유진섭 정읍시 장, 이하 협의회)를 합동으로 개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위 원 19명과 기관별 실무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태 부시장 주재 로 시민안전과 관련한 주요 안건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 다. 위원장인 유진섭 시장은 국가예 산사업 확보 건의를 위해 농립축산 식품부를 방문하여 김인태 부시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읍시의사협회 부회장 조용근을 비롯한 7명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지역 치안 확보 로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회 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방법 ctv 설치・교체와 교통 과속카메라 설 치,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정읍시와 정읍경찰서가 지난 1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 회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환경개선, 교통·재난·기상정보 안내 옥외전광판설치 등의 안건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논의 된 사항에 대해서 정읍시와 정읍경찰서는 2019년 예산에 적극반영하여 안전한 정읍시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태 부시장은 "민과 관의 다양한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충분한 소통으로 지역 치안을 위해 모은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 치안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구제역 예방 위한 백신 일제접종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구제역 유입 방지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일제접종 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시의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은 소 9만 9천 두, 돼지 34만 두, 염소 1만 3천 두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시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100% 보조)해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구입(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하면 된다.

일제 백신접종 후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 우 해당농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고, 정부지원사업 혜택에서 도 배제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한다.

가축의 백신 면역력 향상을 위해 소・염소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 연 2 회 일제접종이 이루어진다. 돼지는 6개 월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시육 기 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고,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뿔 제거)ㆍ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에 일제접종을 실시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 종하면 반드시 항체가 형성돼 발생 위 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 심할 수 있고,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 해서는 정확한 예방 백신 접종과 상시 소독만이 최선의 방역 대책이다"며 축 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청문실, 현장 피해자 보호 알림 홍보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 실에서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럭비 와 유도가 개최되는 고창군 공설운동 장을 찾은 군민과 선수가족 등을 대 상으로 리플릿, 물티슈등 홍보물을 배 부하는 등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활동 을 전개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보호 활동인 법 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전담경찰관 김정아 순경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보호지 원제도를 널리 알려 보호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발굴하고 보호 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해 주민을 포함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리기위해 여러 행사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지원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에 있다. 김성재 서장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